

종교·복지 단신

광주장로성가단
방콕서 선교찬양 활동

○-광주장로성가단(단장 박종남 장로)이 최근 태국 방콕을 방문해 현지 어린이들에게 의류와 학용품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동남아 선교찬양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성가단은 현지 교와원과 어린이 교회에 의류 300벌, 학용품 및 과자, 현지어 성경 50권 등 5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태국 방콕의 사랑의 교회(이규식 선교사)를 방문해 합창과 독창, 율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지 교민의 호응을 얻었다.

1992년 창단해 광주지역 50개 교회 87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성가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하고 2년 마다 해외선교찬양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22~25일 재활계절학교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장용환)이 오는 22~25일 장애아동과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재활계절학교'를 개최한다.

장애아동들에게 방학 중 여가시간 활용과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관람, 도예체험, 놀이, 요리 교실 등이 준비되어 있다.

선착순 20명 모집으로 참가비는 없다. 문의 061-336-4105.

원·예·치·료

식물과 교감
심신을 맑게

연일 짙은더위가 계속되던 9일 오후 3시,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 옥상에 있는 '원예치료실'에서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한창이었다.

무더운 날씨 탓에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선생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진지함이 느껴졌다.

"자, 손으로 화분을 거꾸로 잡고 살살 돌리면서 빼보세요."

사회복지사 서창주(40)씨의 설명에 따라 학생들이 화분에서 식물을 꺼내보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정신지체 장애인 이들에게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이다. 서창주씨는 손길이지만 식물을 옮겨 심고, 잎을 다듬는 손길에는 애정이 묻어났다.

식물을 이용해 장애인이나 노인의 재활을 돕는 '원예치료'가 인기다. 원예치료는 '치료'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녹색이라는 컬러와 다양한 식물·원예 활동으로 재활을 돕는 기술을 말한다. 땅을 파거나 식물을 옮겨심는 등의 과정이 몸을 움직이게 할 뿐 아니라 식물을 직접 만지고 키우는 작업이 이들의 '잠자고 있는' 시각·청각·미각·촉각·후각의 오감을 자극한다.

이처럼 원예치료의 목표는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이들이 식물을 기르고 수확물을 얻으면서 자신도 다른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데 있다. 특히 심신 안정과 치유에 효과적인 원예치료는 최근엔 대체 의학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한국원예협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원예치료를 실시하거나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은 특수 학교, 요양원, 복지관 등 약 20여 곳에 이른다.

지난 2001년부터 원예치료를 시작한 엠마우스 복지관은 5년 동안 꾸준한 원예치료를 운영해 오고 있는 곳이다. 매주 월~금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 수업에는 현재 각각 6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 ▲식물심기 ▲식물원방문 ▲드라이 플라워만들기 ▲꽃꽂이 등 다양한 과정을 배우게 된다. 처음에는 흙을 만진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연 100여 명이 원예치료 과정을 거쳐 갈 만큼 호응이 높다.

복지관 옥상에는 야주가, 풍란, 허브 등 190여 종이 자라고 있다. 꽃집에서 사온 것도 있지만 직접 씨를 뿌려 키우거나 꺾꽂이를 통해 기른 것들이 대부분이다. 광주시 광산구 도촌동에 소재한 복지관 소유의 500평 규모의 텃밭에서는 감자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원예치료를 시작한 서중복(28·정신지체3급)씨는 "원예 수업이 제일 재미있다"며 "맑은 공기도 마시고 동물이나 잠자리도 보고..."라며 만족해했다.

원예치료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창주씨는 "장애 학생들에게는 힘든 작업이지만, 자신이 직접 식물을 가꾸고 키우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며 "흙을 파내고, 식물을 가꾸는 과정은 근력과 집중력을 기르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곽선경기자 ksj@kwangju.co.kr



원예치료수업에 참가한 최소라, 정중호, 서중복, 장우성(왼쪽부터) 씨가 식물을 화분에 옮겨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



종교 칼럼



윤빈호
<천주교 곡성성당 주임신부>

심,
진정한 휴식이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 붓던 물난리를 겪으며 '이제는 제발 비가 그만 왔으면'을 외쳤던 것이 잊고 갈 텐데, 요즘 며칠 동안 지속되는 폭염 아래서는 '시원한 소나기 한번 왔으면'을 희망해 보는 것이 알뜰한 우리네 마음이다.

수해로 가진 것을 몽땅 잃고 복구에 진땀을 빼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생각은 잊고, 무더위를 피해 떠날 휴가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휴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직장, 학교, 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쉬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즉 휴가는 쉬는 것이다. 여기서 쉬, 쉬는 것은 휴양을 말하는 것이고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쉬는 휴가기간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휴가기간에 북적대는 놀이시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아주어야 멋진 아빠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나 모래사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살을 태워야 잘나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현실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휴가를 다녀와서 피곤과 스트레스와 카드 빚만 쌓여 또 일상의 삶을 격정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휴가가 되어버렸다.

진정한 쉬이란 자연과 함께 자연 안에서 보내는 것이다. 자연은 어머니 품과 같아서 모든 것을 껴안아 주며, 또한 이 자연 안에서는 피곤도, 스트레스도 더욱이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다. 독일 유학 당시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에는 일상에서 탈출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몸과 마음을 푹 쉬는 것을 봤다.

그렇다. 휴가란 책으로부터 해방되는 방학(放學)만도, 더위를 피하여 떠나는 피서(避暑)만도 아닌 자연 안에서 쉬는 것이다. 이 쉬는 먼 훗날 나에게 찾아올 죽음이라는 영원한 쉬를 연습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쉬의 연습을 잘하는 사람은 이승에서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며 저승의 삶도 아니 저승에서의 삶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디로 그리고 어떤 휴가를 떠날 것인가.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various real estate and business listings. Key ads include: '가상부동산건설팀 부동산 교환', '이벤트부동산건설팀 공장 [평] 물류창고, 설계, 건축', '장성동화공연중개사 공장, 공장부지, 물류창고, 임야', '부동산 판매 전문회사', '영천공공개발', '고은공연중개사', '신하림부동산주', '대명부동산', and '호남랜드공연중개사'.